

세계적 지휘자 잠피에리와 광주 예술인들의 협연 '감동'

리뷰 - 앙상블칸타빌레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

팬플루티스트 안드레아 키라와 협연 '클라이맥스'
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첼리스트 김항균도 무대에



지휘자 잔 루피에리



22일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팬플루티스트 안드레아 키라(왼쪽)와 세계적인 지휘자 잔 루피에리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마에스트로 잔 루피에리와 정원을 거닐며 한동안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삶과 예술에 대해 자기 소신이 강한 이와 대화는 사유할 거리를 남긴다. 공연 시간이 임박하자 그는 자리를 떴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막이 오르자 잠피에리는 격정적인 지휘 동작으로 시선을 압도했다. 마에스트로 발레리 게르기예프나 피에르 볼레즈 등을 연상시키는 맨손 지휘는 인상적이었다.

루마니아에서 낳아온 외인(外人) 지휘자에게 이날 광주 공연은 어떤 의미였을까.

앙상블칸타빌레(대표 김은민)가 지난 22일 저녁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특별기획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선보였다.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휘자, 팬플루티스트 등이 광주 지역예술인들과 협업하는 무대였다.

이날 공연장은 세계적인 지휘자로 알려진 프랑코 페라라를 사사하고 런던 심포니, BBC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등을 역임한 잔 루피에리를 보기 위한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페라 심포니가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온 잠피에리는 러시아 모스크바 라디오 심

포니, 이탈리아 산카를로 극장 오페라 지휘자, 베로나 필하모닉, 멕시코시티대학 심포니 등을 역임했다. 현재 로마 세실리아 음악학교-페루자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세기 이탈리아인 심포니 레스피기 복원 사업회의 수장으로 있다.

"8년 전 이탈리아와 루마니아를 오가면서 광주를 알게 됐어요. 광주시향 등 다양한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네요. '앙상블 칸타빌레'는 작년과 올해 이탈리아 피렌체 국제아트엑스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이들과 함께 해 영광입니다"

공연 전 나누었던 인터뷰에서 잠피에리는 이번 콜라보 무대가 어떻게 성사됐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광주 음악가들이 많기에, 광주는 향후 국제 음단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잠피에리는 이날 공연의 클라이맥스로 '악마적(Diabolic)' 난이도를 자랑하는 팬플루티스트 안드레아 키라와의 협연곡들을 짰다. 키라는 '클래식 레퍼토리를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팬플루티스트 중 한명'으로 평가를 받는 연주자다.

두 사람의 앙상블은 아르방 베니시의 '축제 변주곡'과 디니쿠의 '호라 스타카토' 등 화려한 선율로 피어났다. 키라는 모든 반음계를 능숙하게 소화했으며 폭넓은 음역대를 구사했다. 이와 조응하는 잠피에리의 지휘법도 인상적인데 무릎을 굽히거나 어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온몸으로 오케스트라와 '공명'했다.

팬플루트 끝을 누르며 비브라토를 만드는 테크닉도 이목을 끌었다. 이날 입고 있던 드레스 색상과 팬플

루트 특유의 음색 때문인지, 붉은 종달새 한 마리가 공연장에 현현한 듯했다.

한편 '레스피기 고풍적 무곡과 아리아 제3모음곡'도 울려 퍼졌다. 잠피에리가 '20세기 이탈리아인 심포니 레퍼토리 레스피기 복원 사업회(이하 복원사업회)'를 이끌고 있어 '고풍적 무곡'을 지휘하는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다.

잠피에리는 "아름다운 선율, 능란한 풍경 묘사에 탁월한 레스피기는 '녹턴', '로마의 소나무' 등 곡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복원사업회 활동을 통해 현대화된 템포와 스타일에 맞춰 오래된 곡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레스피기의 유작인 가극 '루크레치아'가 미망인에 의해 완성돼 초연했던 것처럼, 기존 작품의 현대

화 작업이 향후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이 밖에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첼리스트 김항균은 차이코프스키의 '6개 소품 중 4번-녹턴'을 협연했다. 끝으로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48'로 공연은 막을 내렸다.

앙상블칸타빌레 김은민 대표는 "잠피에리와는 이탈리아에서도 협업했지만 이번에 광주에서 호흡을 맞춰 보니 더 특별한 무대로 기억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국제 무대에서 알려진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024 Mystery Island 6'

인간의 감정과 심리 신비로운 물의 세계

김진남 작가, 25~31일 아크갤러리



'2024 Mystery Island 3'

인간과 물의 관계는 가장 원초적이다.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 연유한 것이기에 물은 신비함과 가능성을 내재한다.

잔잔한 물결의 일렁임은 평안과 휴식의 이미지를 선사한다. 한 여름 갈 갈 데 없이 펼쳐진 질푸른 바다와 수평선은 힐링과 아울러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한다. 그러나 폭풍이 휘몰아칠 때 해안을 덮칠 듯이 밀려드는 파도는 깊은 두려움을 준다.

김진남 작가의 화폭에서 구현된 물은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은유한다. 특히 인체와 결부된 물은 생명의 신비를 넘어 모든 대립항을 제거하는 화해의 촉매제로 다가온다.

김진남 작가가 인간과 물을 모티브로 한 현대적

인 수중인물화를 선보인다. 25일부터 31일까지 아크갤러리.

'Underwater Sto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물의 신비로움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품 '2024 Mystery Island 3'은 제목처럼 미스터리하면서도 환상적이다. 여인이 수중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고 위로는 지구로 보이는 행성이 드리워져 있다. 지구와 여인 모두 생명을 품고 기른다는 점에서 유사한 동일성을 갖는다. 이 두 매개체를 잇는 것은 당연히 생명의 근원인 물이라 할 수 있다. 화사한 오색의 빛을 발현하는 여인의 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어떤 경이감을 느끼게 한다.

작가는 모두 3개의 색채로 이미지를 구성했

다. 첫 번째는 'Underwater Story' 시리즈 유형으로, 물속에 실제인물과 물속에 존재하기 어려운 소재들을 결합한 작품들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상처와 관련된 '트라우마' 시리즈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인체의 오버랩'을 연구한 작업들이다.

김 작가는 "나에게 캔버스와 바탕재는 물과 바다이며 때로는 엄마의 양수이다"며 "물은 삶과 죽음처럼 대립하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연결해주는 매개물질이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홍익대와 동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30년 만에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산 어드벤처' 전시 장면.

도시재생 가치 찾아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

광주시립미술관, 8월18일까지 어린이갤러리 특별전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실감할수있는 콘텐츠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특히 전시는 어린이들이 인터랙티브 전시를 매개로 도시재생의 가치를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이 오는 8월 18일까지 어린이갤러리 특별전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시립미술관과 AI사업단, AI 스타트업 카라멜라가 협업했으며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은 올해 AI사업단이 도시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개발 및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전시는 '무등산 어드벤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별빛 놀이터', '꿈꾸는 소원나무'로 구성됐다. 인터랙티브 체험을 매개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산 어드벤처'는 무등산에서 서식하는 다양

한 생명체, 즉 나무를 비롯해 새와 나비, 벌, 벌레 등 다양한 동식물이 한데 어울려 숲의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꿈꾸는 소원나무'는 나무가 바라는 꿈, 그리고 나무에 깃든 생명체들의 어울림 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들은 체험 등을 통해 재생이 지나는 함의와 그것의 가치를 환기한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매년 어린이갤러리 기획전을 매개로 미술,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작품과 미디어 등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전시는 실감형 콘텐츠와 체험형 콘텐츠 등으로 도시 재생의 가치 등을 구현했다"며 "다양한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도시 문제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루체앙상블 정기연주회, 빛나는 현악 앙상블 매력 속으로

8월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루체앙상블'은 라틴어로 광명을 뜻하는 '루체(Luce)'에서 착안한 5인조 클래식 팀이다. 이들은 2019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신나는 예술여행, 순천문화재단 청춘마이크, 광산문화회관 화요문화산책,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루체앙상블(대표 박지현)이 '제6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8월 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모차르트와 드보르자크, 필립 샤르벤카 등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협약기 선율이 두드러지며 콘서트 곡으로 독립연주되곤 하는 모차르트 곡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막을 연다. 이어 국민악파 시대에 관현악, 실내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드보르자크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트리오'가 울려 퍼진다. 특히 이 곡은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을 기념해 원곡 버전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필립 샤르벤카의 '피아노 퀸트 b단조, Op.118'이다. 샤르벤카의 피아노 오중주는 광주 초연이며 세련된 작곡 기법을 통해 인상주의적 음



'루체앙상블' 멤버들.

<루체앙상블 제공>

색을 펼쳐 보이는 곡이다.

한편 루체앙상블은 박지현(바이올린), 양은지(비올라), 허연희(첼로), 한원희(피아노)로 이뤄진 5인조 여성 앙상블이다. 2022년 글로벌 드림뮤직경연에서 실내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순천문화재단 아고라 순천 전문예술팀에 선정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박지현 대표는 "서거 120주년을 맞은 드보르자의 4개의 낭만적 소품을 원곡 버전인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1대로 연주한다"며 "고전-낭만주의 음악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샤르벤카'의 곡에도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재단,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 공연...8월10일~11일

새엄마는 그레텔을 살리기 위해 소금치약을 구하러 숲속으로 들어간다. 한젤은 새엄마를 돕기 위해 물레 뒤를 따라간다. 뒤를 밟던 한젤은 간지럼 나무가 계속 간지럼을 갖게 웃다 죽을 뻔 한다.

고전의 모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재창작과 재해석일 것이다. 새로운 시각과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버전으로 변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한젤과 그레텔'의 원작을 새롭게 각색한 내용이다. 원작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늪에 마녀가 있는 산에서 겪는 이야기다. 유리병을 깨 아이들은 유리병을 깨 벌로 산속으로 딸기를 따라 들어가고 그곳에서 마녀를 만난다.

고전 동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어린이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극장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일환으로 뮤지컬 '삼양동화' (사진)를 선보인다. (8월 10일-



11일(오전 11시, 오후 2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이번 공연은 어린이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사업인 ACC 펫츠 플레이 두 번째 작품으로 상연된다. 지난 2021년 장단한 예술단체 '해의 아이들'이 기획한 '삼양동화'는 2022년 아시아티지 겨울축제 대표 공연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관람료 1만5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